

發明小史

페니실린發明은 콧물에서 —英 細菌學者 플레민이

注射名藥으로 알려진 페니실린의發明은 1929年 英國의 細菌學者 알렉산더 플레민에 의해 발표되었다.

플레민은 1910년의 어느날 그가 培養하고 있던 寒天基의 세균이 전부 풀린곳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 原因을 생각한 바 자기가 콧물을 떠저트린 곳에만 세균이 풀린것을 發見하달고 새로운 곳에 콧물을 흘린 바 역시 그곳의 세균만이 풀리는 것을 確認하였다. 그는 生物에는 세균의 繁殖을 스스로 防禦하는 殺菌力이 있음을 깨닫고 그쪽의 연구에 全力을 기우렸다. 1928년에는 푸른곰팡이를 배양하여 플라스크속의 고기국물에 注入했던 바 많은 세균에 쌓였던 국물이 8日뒤에는 깨끗이 맑아졌다.

그 液을 實驗한 바 肺炎菌, 디프테리아菌, 炭疽菌, 連鎖球菌 등 많은 病原菌의 번식을 막을 수가 있게 되었다. 더우기 쥐에 注射해도 毒性이나 아무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플레민은 이 液을 페니실린이라고 命名했다. ■

고기만두는
中國 三國時代부터
—諸葛亮이 羊·豚肉으로 빚어
만두(饅頭)라고 하면 고기만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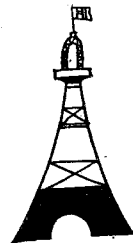
에서 팔만두 등 여러 種類가 있다. 만두의 始祖는 粉食이 主食이던 中國의 三國時代로 遡及된다.

傳說에 따르면 중국의 만두는 諸葛亮이 下人에게 命하여 羊肉이나 돼지 고기를 잘게 썰어 반죽된 밀가루 饅頭皮에 싸서 솥에 찌게 한것이 고기 만두의 시초로 傳해지고 있다.

또한 요즘의 팔만두도 역시 唐에서 傳來된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때의 팔만두는 지금과 같이 설탕을 섞어 빚은것이 아니라 소금을 넣었다는 說이 있다. ■

플라후프로 —攫千金 —政界를 뒤흔들기도

플라후프라고 하면 玩具메이커로 有名한 美國의 루이메커즈인데이며 그는 특히 各國의 原住民 노리를 본딴 장난감을 많이 考案해 냈다.



플라후프로도 필립핀사람들의 노리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며, 이 고안이 세계의 장난감 시장을 한때 휩쓴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한걸음 나아가서는 日本의 政界를 騷亂케한 것도 잊을 수 없다. 일본의 정계사건은 확실한 真相을 파헤칠 수는 없으나 安保騷動에서 岸內閣 退陣까지도 誘發했다는 說마저 나돌았다. 그 내용인즉 메커즈가 日本業者로부터 받은 實施料가 엄청난 金額이 되었으나 이를 本國으로 送金할 길이 없어 運動費나 리베이트로 政界에 부렸다는 소문이 바로 그것이다. ■

赤外線樹脂를 日本서 發明 —듀폰會社가 專用實施權 入手

斷熱劑중에서 4,000度 이상의 高熱에도 이겨내는 赤外線樹脂의 發明一家는 日本의 濱田政雄이다. 이 수지는 솔로 鐵板에 塗布하면 절대로 녹지 않는 것이 特徵이다.

이 수지의 발명이 傳해지자 美航空宇宙局에서 濱田을 招請하여 實驗한 끝에 듀폰會社로 하여금 技術提携를 시켰다.

듀폰이 專用實施權料로 提示한 이때의 特許料는 350萬달라의 巨額이었다. 이 때까지만도 일본은 外國으로부터 받은 單一 실시료의 最高額은 고작 30만달라였으므로 斯界에서 떠들썩 했음은 말 할나위 없다. ■

자이스의 렌즈 130年前에 企業化 —오늘날 光學界王으로 君臨

자이스는 렌즈 生産業者로서 世界 掘指를 자랑하고 있으나 그도 1847년에는 카알 자이스까지 합쳐서 5명이 경영하는 家內工業에 지나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렌즈는 板유리를 동글게 잘라서 兩面을 갈아 만들던 것을 우연한 機會에 굽은 유리를 한쪽만 갈아서 만들어 본 바 그만큼 人力이 半減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만큼 原價節減으로 他企業의 追從을 不許했으며 第1次 世界大戰때에 이미 從業員이 12,000명이 넘는 大企業으로 발전하여 오늘의 자이스가 된 것이다. ■

